

'디지털전환' 대혁신... 경쟁력 키우는 정유업계

국내 4사 작업별로 나눠져 있던 시스템 통합관리 AI로 현장관리 최적화... 드론·로봇개 투입 안전 강화 효율성 높이고 비용 줄여... 생산성 높아져 수익 개선

대표적인 '굴뚝산업'의 상징인 정유화학 분야에 '디지털' 바람이 불고 있다. 녹슨 파이프에 디지털을 덧대어 생산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SK에너지·GS칼텍스·에스오일(S-OIL)·HD현대오일뱅크)은 공장의 디지털전환이 한창이다.

과거에 종이로 출력하던 작업허가서와 근무 일지 등을 디지털화하고 작업별로 나눠 있던 시스템을 통합해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통한 데이터 분석으로 현장 관리를 최적화하고 현장에는 사람 대신 드론과 로봇개를 투입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에스오일은 3년간 250억 원을 투입한 자체 통합 제조운영 관리시스템 '에스-아이

맘스(S-imoms) 프로젝트를 최근 완료했다. 따라서 분산 운영되던 30여 개 시스템을 하나로 모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AI로 데이터를 분석해 공장 유지보수를 최적화했다.

에스오일은 이 같은 업무 혁신으로 작업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사전 감지와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복합팩스(울산 CLX) SK에너지 생산 현장에 AI와 디지털전환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플랜트 2.0을 도입했다. 하늘에서는 드론이, 땅에서는 로봇개가 순찰한다. 어렵거나 위험한 작업을 대신해 생산성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이다.

GS칼텍스도 AI 기반 설비 예측진단 솔루션을 적용했다. AI가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상세 진단하는 한편 현장 조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생산 현장에 AI를 도입해 최대 수익성을 얻는 운전 조건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정유업계가 디지털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SK이노베이션에서 근무하는 울산 CLX 로봇개.

연합뉴스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는 원유를 100% 수입해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내수로 소비되지 않은 제품을 수출해 수익을 얻는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중국과 인도 등은 생산량을 늘리면서 시장 장악력을 키우고 있다.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경쟁력에서 밀리

지 않기 위해서는 시설 유지보수 등에 투입되는 비용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 디지털전환으로 에너지 절감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에스오일은 디지털전환에 기반한 업무 혁신으로 연간 2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또한 100억 원 이상 비용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30년 석유 사용량이 정점에 이른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유업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비용 절감을 위해서 디지털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디지털화로 인해 업계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생겼지만 생산직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 사회적으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부터 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소부장 공급망 강화 5년간 1000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5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제2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제2기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력자 기술과 공급망의 핵심기지로 육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26일부터 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오송(바이오 소부장) △대구(모터) △광주(자율주행차) △부산(전력반도체) △안성(반도체 장비) 등에 구축된다.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단기간에 산학연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등을 집적화해 입주 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 테스트 시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수개월에 걸친 입주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단지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고 기업의 수요를 반영했다.

산업부는 이달 26일부터 7월25일까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평가·선정 작업을 거쳐 9월부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함께 기술개발·인력양성·규제 완화 등을 병행해 제2기 특화단지가 바이오·미래차·반도체 소부장 분야의 핵심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취준생 '기업분석' 조회 1위 '현대차'

취업준비생이 기업 정보를 가장 많이 찾아보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 현대자동차가 1위를 차지했다.

AI 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는 25일 취준생 1055명을 대상으로 '기업 분석 여부'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74%는 지원하기 전 기업 분석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중은 16%였고 '기업에 따라 다르다'는 10%였다.

분석이 가장 활발한 기업(조회수 기반) 1위로는 현대자동차(1만6000회)가 꼽혔다. LG전자가 1만4000회로 2위였고 삼성전자(1만1000회)가 3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CJ제일제당(1만 회) △현대모비스(8000회) △CJ올리브영(8000회) △기아(7000회) △아모레퍼시픽(7000 회) △네이버(7000회) △대한항공(7000회) 순이었다.

구직자가 기업 분석 시 주로 살펴보는 내용(복수 응답 가능)은 사업·브랜드 등 '기본정보(61%)'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응답자 74% '지원 전 기업 분석한다'

LG전자·삼성전자·CJ제일제당 順

이러 최근 이슈와 채용 정보가 각각 34%와 31%였고 경쟁사 및 업계 현황(29%)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어 △사업보고서(22%) △합격자료(19%) △재무정보(17%) △현직자 리뷰(1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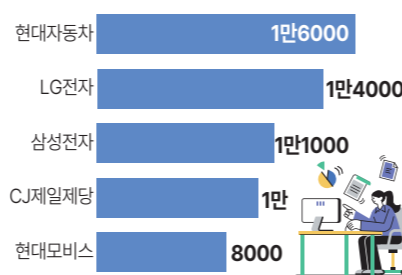
기업 분석을 진행하는 시기는 공고가 뜨면 하는 경우가 45%로 가장 많았고 '평소에 틈틈이 해 둔다'고 답한 비중도 32%를 차지했다. 이어 '지원하기 직전에 한다'가 16%였고 '기업에 따라 다르다'가 7%였다.

한편 구직자 대다수는 기업 분석 과정을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분석을 경험한 구직자 중 73%는 기업 분석의 난이도가 높다고 답했다. 이어서 '보통이다'가 26%로 나타났고 '쉽다'고 답한 경우는 1%에 불과했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문장은 "기업분석

기업 분석 리포트' 조회수 상위 기업

(단위: 회수, 2024.6월 기준)



자료: AI 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

리포트는 꼭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제공해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수요가 높다"며 "앞으로도 구직자들이 편리하게 기업 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콘텐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韓수출 '순풍에 돛' 달았다

주요 지역 수출상황 점검 미국·인도 역대 최대 실적

우리나라 수출이 미국·중국 등 주요 지역에서 증가하면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지역별 6월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제6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미국·중국·아세안 등 6개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대 주요 지역 중 유럽연합(EU)·중동·독립국가연합(CIS) 등 3개 지역에서만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출을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주요 품목별로 수출이 고르게 호조를 보였다. 품목별 대비(對美)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06% 늘었고, 자동차 수출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지난해 8월부터 월별 최대치를 10개월 연속으로 경신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소비재·중간재·자본재 등 품목별 수출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올해 들어서도 동기간 대비 역대 최대 실적인 533억 달러(17.2%)를 기록하기도 했다.

대중(對中) 수출은 반도체(37%)·디스플레이(27%) 등 정보통신기술(IT) 품목 수출이 주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 늘어난 527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의 5대 수입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對)아세안 수출은 반도체(+19%)·무선통신기기(+19%) 등 IT 품목과 석유제품(+9%)·석유화학(+20%)을 중심으로 역대 2위 실적(460억 달러·7.2%)을 기록했다.

대인도 수출은 5대 수출 품목 중 4개 수출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인 78억 달러(72.9%)를 달성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 가장 소중한 분께 ” 건강을 선물하세요



대한민국 NO.1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당큐락 혈당 유산균 (24년 3월 기준)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매원: (주)유한양행 | 연구개발: (주)에이투엔 | 제조원: 코스맥스엔비(주)
*CJ인스타인(23.01-12) 혈당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1등, NS홈쇼핑(23.01-06) NS 혈당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1위



대행큐~
당큐락!

더 알아보기



Kimboon
김보운
당큐락 전속모델